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랑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에서 불교 승려들의 구법유학(求法留學) 실태를 각 시대별로 검토할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삼국시대 이래 고려 말까지, 불교의 승려들은 각각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으며, 수준 높은 수도와 신행을 통해 종교적 체험을 한 거룩한 자였다. 이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가 외국유학의 길을 나섰다. 그들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수학하고, 그리고 그 수학을 마친 다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 한다. 그 가운데 첫번째로 한국불교사에서 중국유학의 최초 선구자 가운데 하나라 할 고구려 승랑(僧朗)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의 연구는 승랑의 섭산(攝山) 서하사(棲霞寺)를 그 연원으로 하는 중국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가풍(家風)을 밝히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따라서 승랑 재세시(在世時) 서하사 승려들과 이 서하사에 귀의한 재가불자들의 행의(行儀) 및 인품을 살펴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뒷날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가풍을 형성하고 전승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I. 연구의 성격

한국인이란 다 알고 있듯이, 삼국시대 이래 고려말까지는 한국인의 생활문화

자체가 대부분 불교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승려들은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수행을 통해 도(道)를 체험하고 있는 거룩한 종교인이었고, 국왕을 위시하여 상하 인민의 존경과 공양을 받는 복전(福田)이기도 했다. 승려들의 이러한 사회적 위상은 승려들 자신의 학문과 신행 내지 수행에의 정진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정진 가운데는, 결코 적지 않은 구법의 외국유학이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각 시대 승려들의 이 외국유학의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승려로서 외국유학의 최초 개척자 가운데 하나라 할 고구려의 승량을 첫번째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구려 승량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사승관계” 그리고 “승량연원의 중국 삼론학사에서 남조문화와 양무제”의 제목으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구법유학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활동에 중심을 두고 검토하여,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학이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으며, 또한 한국사에는 어떤 기여나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탐구하려 한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의 연구는 승량의 스승인 법도(法度)와 승량을 포함한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재가불자로서 이들에게 귀의했던 자들의 행의와 인품의 검토를 통해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학문과 수행에서의 분위기 내지 인품의 공통점을 밝혀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 가풍의 형성과 전승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II. 승량과 법도의 인품

승량(僧朗)의 스승 법도(法度)에 관한 기록 몇가지를 아래에 간단히 인용해 본다.

[1-1] : 석법도(釋法度)는 황룡(黃龍) 사람으로 소년시절에 출가했다. 북토(北土)에 유학(遊學)하여, 두루 여러 경(經)을 갖추어 모으고 오로지 고절(苦節)에 힘써 성취하였다. 송말(宋末)에 경사(京師)에 유력(遊歷)하였다. 고사(高士)인 제군(齊郡)의 명승소(明僧紹)가 자취를 사람 밖에 막아, 낭야(瑯琊)의 섭산(攝山)에 은거하였다. 법도의 맑음과 아름다움을 잡고 기다리되 사우(師友)의 예로써 공경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은거하던 바 산을 버리고 서하정사(栖霞精舍)를 만

들어 법도가 있기를 청하였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중단).¹⁾

[I - 2] : 법도는 항상 안양(安養)에 나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무량수경(無量壽經)』을 두루 강설(講說)하여 편수(遍數)를 쌓았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하단).²⁾

[I - 3] : 제(齊)의 거사(居士) 평원(平原)의 명승소(明僧紹)는 공(空)의 이해가 깊고 지극한 이치가 고묘(高妙)하여 영현(榮軒)을 남긴 채, 자취를 암혈(巖穴)에 숨겼다. 송(宋)의 태시(泰始) 연간(年間)에 일찍이 이 산에 유력(遊歷)하고, 여기에서 종생(終生)하기로 마음 먹었다. ----- 법도선사가 있었던 바, 집은 본래 황용(黃龍)으로 백사(白社)에 내유(來遊)하여 범행(梵行)을 닦아 고행(苦行)을 다하니, 법성(法性)이 순일(純一)하게 갖추어졌다. 승소(僧紹)와 함께 명제(冥契)가 매우 잘되었다. 일찍이 산사(山舍)에서 『무량수경』을 강설하던 한 밤중에 홀연히 금색광명이 방을 비추는 광명 가운데 마치 대관(臺館)이 있는 듯한 형상을 보았다. ----- 거사가 마침내 본택(本宅)을 버리고 이 절을 이룩하고자 했으니, 바로 영명(永明) 7년 정월 3일에 법도가 만든 것이다(平井俊榮, 1976: 250의 “註(4)” 攝山棲霞寺碑銘).³⁾

위의 [I - 1]에서 승람의 스승 법도는 청고(淸高)한 고절(苦節)을 닦은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I - 2]에서는 법도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인 안양에 나기를 발원한, 경건한 미타신행자인 동시에 『무량수경』의 강설자이기도 하다. 더욱이 [I - 3]에서는 범행을 닦고 고행을 다하여 법성이 순일하게 갖추어진 고승으로서, 미타신앙의 영험을 체험한 수행자이기도 하다. 특히 “백사(白社)에 내유(來遊)하여 범행을 닦고 고행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법도가 중국 불교사에서 정토불교를 처음으로 개창한 여산(廬山)의 혜원(慧遠)이 전개한 백련결

1) “釋法度 黃龍人 少出家 遊學北土 備綜衆經 而專以苦節成務 宋末遊于京師 高士齊郡明僧紹 抗迹人外 隱居瑯琊之攝山 挹度淸微 待以師友之敬 及亡捨所居山 爲栖霞精舍 請度居之.”

※여기에서 大正藏經은 大正新修大藏經을 가리킨다. 앞으로도 같다.

2) “度常願生安養 故偏講無量壽經 積有遍數.”

3) “齊居士平原明僧紹 空解淵深 至理高妙 遺榮軒跡跡巖穴 宋泰始年中 嘗遊此山 仍有終焉之志 ----- 有法度禪師 家本黃龍 來遊白社 梵行殫苦 法性純備 與僧紹冥契甚善 嘗於山舍 講無量壽經 中夜 忽見金光照室 光中如有臺館 ----- 居士遂捨本宅 欲成此寺 卽永明七年正月三日 度正人之所構也.”

※이 碑銘은 『金陵梵刹志』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국내에서는 이 문헌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제2차자료를 활용했다. 앞으로도 『金陵梵刹志』에 수록된 섭산 서하사에 관한 문헌은 한 동안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사(白蓮結社)에 참여했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더욱이 혜원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중관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불타발타라(佛跋陀羅)의 선정법(禪定法)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는 계율학을 가르치면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신앙을 고취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중국불교역사상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으로 유명하다. 진(晉)의 성강시대(成康時代, 326-344)에 유빙(庾冰)이 정치를 보좌했던 바, 진(晉)의 성제(成帝)를 대신하여 사문은 왕자(王者)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조칙을 내리자 상서령 하충(何充) 등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초세속적인 종교로서의 불교적인 예법과 세속적인 통치로서의 봉건적인 예법과의 관계설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봉건주의의 통치체제에서는 언제나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혜원은 이 문제의 논전에 참여하여 “불법은 왕법에 초연한 방외(方外)의 일이다”라는 입장을, 끝내 굴하지 않고, 분명하고도 체계 있게 주장했다(高僧傳6, 釋慧遠, 大正藏經50: 360중단-361상단; 弘明集12, 「晉尚書令何充等執沙門不應敬王者奏三首」 내지 「廬山慧遠法師與桓玄論料簡沙門書一首」, 大正藏經52: 79중단-85하단; 任繼愈 主編, 小川隆 他5人 日譯, 1994: 643-652; 鎌田茂雄, 章輝玉 譯, 1993: 362-382). 이와 같이 혜원은 계행이 청정하고 경건한 정토신행자이면서, 불교의 교학만이 아니라 내외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박학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호법을 위해서는 일신의 안위를 고려치 않는 강직함과 고결함을 지닌 고승이었다. 승량의 스승 법도가 이러한 혜원의 결사에 동참하여 적지 않은 감명과 감화를 받았음직하다.

한 편, 법도의 제자 승량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그에 관한 기록 몇 가지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II- 1] : 법도(法度)에게 제자 승량(僧朗)이 있어 선사(先師)의 뒤를 계승하여 다시 산사(山寺)를 통솔(綱)하였다. 승량은 본래 요동인(遼東人)으로, 성품의 됃됨이가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該博)하였다. 무릇 그 경(經)과 율(律)은 다 능히 강설(講說)하였으나, 화엄(華嚴)과 삼론(三論)을 제일의 명가(名家)로 하였다. 금상(今上)이 그 그릇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고 칙(勅)하여 모든 의사(義士)가 산에 가서 학업을 받게 하였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하단).⁴⁾

4) “度有弟子僧朗 繼踵先師復綱山寺 朗本遼東人 爲性廣學思力該博 凡厥經律皆能講說 華嚴三論最所命家 今上深見器重 勅諸義士受業于山.”

[II- 2] : 송조(宋朝) 이래로 삼론(三論)의 상승(相承)은 그 스승이 하나가 아니며, 아울러 모두가 나집(羅什)에게 받은 것이다. 다만 연대가 오래고 문헌[文疏]이 영락(零落)하여 제조(齊朝) 이래 헌강(玄綱)이 거의 끊어지려 하였다. 강남에서는 『성실론(成實論)』이 크게 성행했고, 하북에서는 비담(毘曇)을 편승(偏崇)하였다. 때에 고려의 낭공(朗公)이 제(齊)의 건무(建武)에 이르러 강남에 와서 성실논사(成實論師)들을 힐난(詰難)하여 혀를 묶어 놓아 대답을 못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낭공은 스스로 삼론을 흥포하였다. 양(梁)의 무제(武帝)가 지관사(止觀寺)의 승전(僧詮) 등 10인에게 칙(勅)하여 삼론을 배우게 했다(法華玄義釋籤19, 大正藏經33: 951상단).⁵⁾

위의 [II- 1]에서 볼 때, 승랑은 분명히 법도의 후계자다. 그리하여 섭산 서하사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법도에 관한 세 인용문과 위의 승랑에 관한 두 인용문을 대조해 볼 때, 법도와 승랑의 사승관계는 특이하다고 하겠다. 법도는 어디까지나 청고(淸高)한 고절(苦節)의 범행자(梵行者)인 동시에 미타정토의 경건한 신행자이면서 강설자였다. 많은 점에서 여산 혜원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에 비하여 제자 승랑은 “그 인품이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該普]하였으며, 경(經)과 율(律) 모두를 다 강설(講說)했으나, 화엄(華嚴)과 삼론(三論)을 제일의 명가(名家)로 할 정도였다. 승랑은 불교의 교학에 해박하고 강설 내지 강론의 능력도 대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II- 2]에서 느끼는 승랑의 이미지는 도전적인 논사(論師)의 모습이다. 그러나 법도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포착할 수 없다. 더구나 법도에게서는 삼론이나 이 삼론학의 바탕인 반야중관에 관한 것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단, 앞서의 본 연구자의 최근 발표논문 “고구려 승랑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사승관계”에서,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법도와 승랑과의 사승관계는 학문이나 사상의 매개가 아니라, 앞으로 논의되듯이, 법도와 승랑 및 법소가 모두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이면서 그 본향(本鄉) 또한 산동지역 내지 그 근처로 하고 있는 특수한 인간관계에 의한 서로의 신뢰와 존경이 이들 사승과 사형제(師兄弟)의 관계성립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II- 1]에서 “금상(今

5) “自宋朝已來 三論相承 其師非一 並稟羅什 但年代淹久 文疏零落 至齊朝已來 玄綱殆絕 江南盛弘成實 河北偏尚毘曇 於時 高麗朗公 至齊建武 來至江南 難成實師 結舌無對 因茲 朗公自弘三論 至梁武帝勅 十人止觀詮等 令學三論.”

上)이 그 그릇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고 칙(勅)하여 모든 의사(義士)가 산에 가서 학업을 받게 하였다”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금상(今上)”이란, [II- 2]에서 확인되듯이, 중국불교사에서 호불군주(護佛君主)로 유명한 양나라 무제이다. 또한 이 기록의 내용에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강남에 관내(關內)의 삼론 즉 장안의 삼론을 전한 것은 오직 승랑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 길장(吉藏)을 위시하여,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 삼론학 내지 삼론종 후예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내의 삼론” 다시 말해 “장안의 삼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결국 나집(羅什)이나 그 나집에게 수학한 직제자들에 의해 전승된 이른바 “관내구설(關內舊說)”로서, 이 관내구설이라는 용어 속에는 “정통의 삼론학”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승랑의 후예들은 『성실론(成實論)』은 진정한 대승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삼론학을 『성실론』과 차별화해 나갔다. 따라서 『성실론』에 정통했던 양무제는 삼론학의 새로운 교학에 공감하고, 천감 11년에 10인의 학승을 선발하여 섭산 서하사의 승랑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학하도록 하였다. 앞서의 [II- 1]에서 “금상(今上)이 그 그릇의 무거움을 보고 칙(勅)하여 모든 의사(義士)가 산에 가서 학업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양무제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무제가 승랑을, 초창의 형식을 빌려 황궁이나 황도(皇都)로 부를 수도 있었겠으나, 승랑에게 배워야 할 10인의 학승 내지 의사(義士)들이 섭산 서하사의 승랑에게 직접 찾아 가도록 한 것 또한 양무제의 사려 깊은 조치였다 하겠다. 다시 말해 양무제의 이러한 조치는 승랑이 지도하고 있는 섭산 서하사의 가풍이 매우 청고하고 고결한 점을 유의한 것이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그릇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고[深見器重]”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 점은 승랑에게서 확인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 [II- 3]은 바로 그 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II- 3] : 앞서 명덕(明德) 승랑법사가 있었는데 고향인 요수(遼水)를 떠나 경화(京華)에서 도(道)를 물었다. 청규(淸規)에 배어났으며, 석학으로 정밀하게 달통했다. 일찍이 반야의 성(性)을 이루었고 계율의 근본을 심었으며, 방등(方等)의 지귀(指歸)를 천명하고, 중도의 종치(宗致)를 흥포하였다. ----- 황도(皇都)에 나가지 않고 장차 삼기(三紀)를 밟았다. ----- 천감(天監) 11년에 황제가 유중사(遺中寺) 석승회(釋僧懷)와 영근사(靈根寺) 석혜령(釋慧令) 등 승려 10인에게 산에 가서 삼론의 대의

를 자수(諸受)하게 하였다(平井俊榮, 1976: 248의 棲霞寺碑文).⁶⁾

여기에서 승랑이 “경화(京華)에서 도(道)를 물었다”는 것은 승랑이 강북의 장안에서 나집 내지 나집으로부터 직접 수학한 학승들로부터 전승된 이른바 관내구설(關內舊說)의 정통 삼론학을 강남의 남조에 전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규(淸規)에 빠어났으며”, “계율의 근본을 심었다”는 표현은 청정하고 고고(孤高)한 범행(梵行)과 인품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승랑의 이와 같은 청정과 고고함은, 위의 [II- 3] 가운데 승랑이 “황도(皇都)에 나가지 않고 장차 삼기(三紀)를 밟았다[不遊皇都 不涉三紀]”라고 하는 데에서 더욱 약여하게 드러난다. 왜 그럴까. 1기(紀)에는 10년 또는 12년의 두 용예가 있어 3기는 30년 내지 36년이 되지만, 이는 정확한 숫자이기보다는 30여년의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황도에 나가지 않고 장차 3기(紀)를 밟았다”는 내용은 승랑이 평소 세속의 변화한 곳이나 권력의 근처를 멀리하고 초연하게 구도자의 길을 견지한 고결한 인사였음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III. 승랑의 사형제들

『고승전』의 「법도전」에는 법도의 제자로, 승랑 이외에 법소(法紹), 팽성사(彭城寺)의 혜개(慧開), 여항현(餘杭縣)의 법개(法開), 승소(僧紹)의 네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 법소는 『고승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III- 1] : 때에 사문 법소(法紹)가 있어 행업(行業)이 청고(淸苦)하여 성예(聲譽)가 법도보다 나았으며 학해(學解)도 우수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북산(北山)의 두 성현이라고 했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하단).⁷⁾

6) “先有明德僧朗法師者 去鄉遼水問道京華 —— 淸規挺出 碩學精詣 早成波若之性 夙植尸羅之本 闍方等之指歸 弘中道之宗致 —— 不遊皇都 不涉三紀 —— 天監十一年 帝乃遣中寺釋僧懷 靈根寺釋慧令等 十僧詣山 諮受三論大義”

7) “時有沙門法紹 業行淸苦 譽齊於度 而學解優之 故時人號曰 北山二聖.”

이미 확인했듯이, 승량의 은사 법도의 행의와 인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로지 고절(苦節)에 힘써 성취하였다”로 압축할 수 있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의 제자 법소(法紹) 또한 행업(行業)이 청고(淸苦)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법도와 함께 “북산(北山)의 두 성현”이라고 했다 한다. 다시 말해 승량의 스승 법도는 이미 고절(苦節)한 승려로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드러났거니와, 그의 제자 법소도 또한 청고하여 법도 못지 않은 수행자로서 법도와 함께 북산의 두 성현으로 불릴 정도의 인물이었다. 한 편, 『고승전』의 「법도전」에서는 혜개(慧開), 법개(法開), 승소(僧紹)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Ⅲ- 2] : 때에 팽성사(彭城寺)의 혜개(慧開)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신기(神氣)가 높고 밝았으며, 학문에 대한 의지가 오래고 깊다. 그러므로 일찍이 그 성예(聲譽)가 드러나 강(講)할 나이가 되자 바로 강을 하였다. 또 여항현(餘杭縣)의 법개(法開)라는 자도 또한 맑고 밝으며 재주가 뛰어나, 담론과 깨우치기를 잘하였으며, 수도에 나아가 선강사(禪岡寺)에 머물렀다. 같은 절의 승소(僧紹)와 함께 당시에 알려진 인물이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하단).⁸⁾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혜개는 신기가 높고 밝았으며, 학문에 대한 의지도 오래고 깊어 그 이름이 일찍이 알려져 있던 인사이었다. 그리하여 강경(講經)을 할 나이가 되자 바로 강(講)을 하기 시작했다 한다. 다시 말해 고매한 인품에 학덕까지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법개도 맑고 밝은, 그런 의미에서 역시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법개는 특히 재능도 있고 담론에도 능하였으며, 수도에 나아가 선강사에 머물렀는 바, 같은 절의 승소와 함께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인사였다 한다. 이미 확인한 바 있거니와, 법도와 그 제자인 승량 및 법소는 모두 고절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법도의 또다른 제자들, 즉 혜개와 법개 등 승량의 또다른 사형제(師兄弟)들 모두가 또한 고매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다행하게도 팽성사(彭城寺)의 혜개(慧開) 및 여항현(餘杭縣)의 법개(法開)는 그 전기가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입전(入傳)되어 있다.

「속고승전」에 의하면, 양량도(梁楊都) 팽성사(彭城寺)의 혜개(慧開)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8) “時有彭城寺慧開 幼而神氣高朗 志學淵深 故早彰令譽 立年便講 又餘杭縣法開者 亦清爽俊發 善爲談論 出京止禪岡寺 與同寺僧紹 有聞當時.”

[Ⅲ- 3] : 속성은 원(袁)이고, 오군(吳郡) 해염(海鹽)의 사람이다. 처음에 출가하여 선무사(宣武寺) 법총(法龍)의 제자가 되어 아비담(阿毘曇)과 『성실론(成實論)』을 배웠다. 건무연간(建武年間)에 수도에 유학(遊學)하여 도림사(道林寺)에 있었으며, 지장(智藏)과 승민(僧旻) 두 고승에게 경론을 두루 들었다. 뒤에 팽성으로 이주하였으며, 배움에 있어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다. 흔히 함께 어울려 술과 해학 및 장기와 바둑을 즐겼다. 그러나 잠깐의 기회라도 만나면 슬그머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자리 위에서는 말이 아주 서툴렀으나, 앞에서 익힌 것을 뒤에 갑자기 그 이름과 가르침만을 간략히 해명하면 모두 새롭다 하여 기뻐했다 한다. 특히 명칭의 해명과 이치의 분석에는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다. 재물을 쌓지 않았고, 하루가 다하기 전에 심성을 허탕(虛蕩)하게 하였으며, 정서는 소탈했고 형의(形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의복에 때가 끼어도 자신이 마음 먹고 옷을 세탁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계절에 따라 춥고 더운 것도 개의치 않았으며, 그대로 맞추어 지냈다. 천감 6년(507)에 39세로 숨을 거두었다(續高僧傳6, 釋慧開. 大正藏經50: 473상단).

이렇게 볼 때, 승랑의 사형제(師兄弟)인 혜개의 생애에서는 한 시대의 기인(奇人)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도 숨어 사는 은일(隱逸)의 거사와 같은 일면을 느끼게 한다. 그의 학문이라 하면 주로 아비담과 『성실론』의 교학이었다. 그리고 앞서의 [Ⅲ-2]에서는 “신기(神氣)가 높고 밝았으며” 학덕이 깊어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인물로 전하고 있으나, 정작 혜개의 본전(本傳)이 전하는 『속고승전』에서는 술과 해학이나 장기 또는 바둑을 즐겼다 한다. 아무래도 고결이나 청고(淸苦)와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승전』과 『속고승전』의 전하는 바에 차이가 있다. 물론 초탈하고 달관한 듯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청고의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도 또한 보인다. 승랑의 사형제인 법개(法開)는 어떠했던가. 역시 『속고승전』에서 발췌해 본다.

[Ⅲ- 4] : 속성은 유(兪)이고, 오흥(吳興)의 여항(餘杭)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북창사(北倉寺)에 머물렀으며, 담정(曇貞)의 제자가 되었다. 담정은 맑고 깨끗하며 엄숙한데다 특히 해행(解行)이 있었다. 법개는 어려서부터 총민(聰敏)했으나 가정이 빈한하여 옷도 제대로 못입었고 먹는 것도 거칠었다. 동학(同學)의 승류(僧流)와 함께 담정에게 학업을 받아 여러 해를 쌓았는 바, 깊은 곳과 미묘한 것에는 동학(同學)의 무리 가운데는 아직 법개에게 미치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문헌을 지고 서유(西遊)하여 선강사(禪岡寺)에 머물렀다. 이에 승유(僧柔)와 혜차(慧次) 이공(二公)으로부터 『성실론』을

배웠으며, 옷은 형체를 가리지 않았고 먹는 것은 목숨을 지탱할 정도였으며, 추운 바람이나 더위와 비를 피하지 않았다. 행업(行業)을 닦아 우수하여 정밀한 이해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하루 종일 노닐면서 담론하되 잠시라도 쉰 적이 없다. 심성이 조급하고 예민해서 대적(對敵)하여 공격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날카로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혀를 묶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그 이름이 널리 드러나, 이부상서(吏部尙書) 낭야(瑯琊)의 왕준(王峻), 영가(永嘉)의 태수인 오흥(吳興)의 구지(丘垓)가 다 읊(摺)하고 공경하며 추상(推賞)하여, 길이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의 강연(講筵)에서는 도속(道俗)이 서로 접(接)하면 모두 탄복하였다 한다. 사문 지장(智藏)이 뒤에 우혈(禹穴)에 노닐면서 성론(成論)을 강화(講化)하였다. 법개가 가서 보고 여러날 거듭하여 강직(剛直)한 논란을 벌이니, 빈료(賓僚)들이 모두 기쁨을 만끽했다. 지장이 말하되, “법개법사에게는 이미 말씀이 많았으니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내가 글에 넣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법개는 “석가의 설법에 다보(多寶)가 용현(踊現)했거니와, 법사는指南(指南)을 대중에게 명하고 객(客)을 보냄은 어떠하겠는가”라 했다 한다. 보통(普通) 4년(523)에 입적하니 춘추 65세였다(續高僧傳6, 釋法開. 大正藏經50: 474상단-중단).

위의 [III- 4]에 의하면, 법개 역시 앞의 혜개(慧開)와 공통된 점이 많이 보인다. 앞에서, 혜개는 재물을 쌓지 않았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심성을 허탕(虛蕩)하게 하고, 정서는 소탈했으며, 형의(形儀) 또한 중요시하지 않았다. 일찍이 옷이 더럽고 때가 끼었어도 개의치 않아 의복을 세탁하고자 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춥고 더운 것도 별로 개의치 않고 그대로 맞추어 지냈다. 그리고 법개에서는 “옷은 형체를 가리지 않았고 먹는 것은 목숨을 지탱할 정도였으며, 추운 바람이나 더위와 비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나도 흡사한 삶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혜개와 법개는 한 시대의 기인(奇人)이거나, 아니면 숨어 사는 은일(隱逸)의 거사와 같다. 혜개의 학문은 주로 아비담과 『성실론』의 교학이었으나, 법개는 『성실론』의 전공자였다. 그러나 혜개와 법개의 학문이 다른 것은 아니다. 성실론자들은 대부분 아비담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혜개와 법개는 모두 『성실론』의 전공자였다. 논변이나 강론에 있어서, 혜개는 평소에는 슬그머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자리 위에서는 말이 아주 서툴렀다. 하지만, 앞에서 익힌 것을 한 순간 갑자기 간결하게 분석하고 밝히는 데에는 특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더욱이 명칭의 해명과 이치의 분석에는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어떤 경우에도 그의 논변을 쫓기가 어려웠다 한다. 이에 비하여, 법개에서는 “행업(行業)을 닦아 우수하고 정밀하여 이해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하루 종일 노닐면서 담론하되 잠시도

쉬지 않았으며, 심성이 조급하고 예민해서 대적(對敵)하여 공격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날카로움은 상대방의 허를 뚫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다”고 전한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존경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논변의 탁월한 능력에 따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논변 내지 논란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매우 도전적이고도 강한 주장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법개의 이러한 점은 그가 공격적인 대론(對論)을 즐겼고, 논의나 의견에 잘못이나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논란을 벌려 확인해야만 했던 성정(性情)의 인물로 보인다. 법개를 “심성이 조급하고 예민해서 대적하여 공격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전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혜개와 법개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계율과 관련된 행업(行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인사 모두 사상적으로는 『성실론』 전공의 논사(論師)라 하겠고, 또한 두 사람 모두 한 시대의 기인이나 달인, 또는 은일(隱逸)의 거사와 같은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혜개와 법개의 이러한 점은 법도와 그의 제자인 승랑을 위시하여 세속적인 탐욕이나 안일을 벗어나 초연한 삶을 추구하는, 서하사 문화의 청고(淸苦)하고 고결(高潔)하며 고매(高邁)한 생활의 공통성을 일면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혜개는 술과 해학, 그리고 장기나 바둑을 가까이 했다는 점에서는 법도와 승랑을 중심으로 하는 섭산 서하사의 분위기나 공통된 인품과는 거리가 있는 예외적인 인물로 보인다. 한 편, 여러 면에서 혜개와 비슷한 법개가 행의에 있어서 혜개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현존한 자료에 따르면, “맑고 깨끗하며 엄숙한데다 특히 해행(解行)이 있었던”(續高僧傳6, 釋法開. 大正藏經50: 474상단-중단).⁹⁾ 수행자이면서도 교학의 학자였던 은사 담정(曇貞)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IV. 섭산 서하사에 귀의한 재가불자들

앞서의 인용문 [Ⅲ-2]에 “같은 절의 승소(僧紹)”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앞서의 인용문 [I-1]에는 승랑의 스승인 법도(法度)에게 “고사(高士)인 제군(齊郡)

9) “釋法開 ----- 爲曇貞弟子 貞淸素澄嚴 殊有解行.”

의 명승소(明僧紹)가 있어 자취를 사람 밖에 막아, 낭야(瑯琊)의 섭산(攝山)에 은거하였으며, 법도의 맑음과 아름다움을 잡고 기다리되 사우(師友)의 예로써 공경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서 명승소가 법도에게 이토록 공경을 다한 것은 법도의 고절(苦節)을 존경한 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I-1]의 명승소와 [III-2]의 승소는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전연 다른 사람인가. 선행연구에서는 승소와 명승소는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다(平井俊榮, 1976: 244-246). 그리고 이 명승소는 승랑에 연원을 둔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 섭산(攝山)의 서하사(棲霞寺)를 개창(開倉)하게 한 인물이다. 이 점에 대하여, 『고승전』의 「법도전」에는 좀 전의 고사(高士)인 명승소가 섭산에 은거하였으며, 법도를 사우의 예로 공경했다는 내용에 이어, 명승소가 “죽음에 이르자 은거하던 곳을 버리고 서하정사를 만들어 법도가 그 곳에 머무르기를 청했다”(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중단)¹⁰⁾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인 앞서의 [I-3]를 검토해 보면, 제(齊) 나라의 명승소는 은일(隱逸)의 거사로서, 그가 섭산에 머물러 자취를 숨기었으나, 뒤에 승려가 되어 말년에는 유언으로 섭산에서 은거하고 있던 집을 서하사로 개창하게 했는 바, 명승소의 이러한 행위 또한 원래 은일의 거사로서 법도의 고절에 대한 존경과 미타신행영험의 감화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명승소(明僧紹)는 사서(史書)에 고일(高逸)의 은사(隱士)로 열전에 기록될 정도의 인물이다. 그의 전기는 『남제서(南齊書)』(南齊書54, 열전35, 高逸: 明僧紹)와 『남사(南史)』(南史50, 列傳40: 明僧紹)에 나오며,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이 두 사서를 모두 고려하되, 『남제서』를 기준으로 하고 『남사』에 의해 보충하면서 간단히 발췌해 본다. 따라서 『남제서』의 기록이거나, 『남제서』와 『남사』가 일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각주를 달지 않기로 하겠다. 명승소(明僧紹)의 자(字)는 승렬(承烈), 또는 휴열(休烈)이라 하고,¹¹⁾ 평원(平原) 즉 산동성 사람이다. 조부 완(玩)은 주(州)의 치중(治中)이고, 아버지 약(略)은 급사중(給事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사』의 경우에는 그 선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¹²⁾ 조부의 관직이 주중종사(州中從事)로 되

10) “及亡捨所居山 爲栖霞精舍 請度居之.”

11) 『南齊書』에서는 承烈로만 전하나, 『南史』에는 休烈과 承烈 두 가지로 전한다.

어 있어 표현에 차이가 있다. 승소는 송의 원가기간(元嘉期間, 424-453)에 명경(明經)과 유술(儒術)의 수재(秀才)로 두 차례나 천거되었고, 영광(永光) 기간에 진북부 벽공조(鎮北府辟功曹)가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장광군(長廣郡) 노산(嶠山)에 숨어 무리를 모아 학(學)을 세웠다. 명제(明帝) 태시(泰始) 6년에 징통직랑(徵通直郎)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승명(昇明) 연간에 태조가 정폐(旌幣)의 예로써 승소(僧紹)를 고환(顧歡), 장영서(臧榮緒)와 함께 태부(太傅)로 삼아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영명(永明) 원년에 조직으로 승소를 불렀으나 병을 칭하여 만나지 않았다. 국자박사로 불렀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승소가 이미 숨어 십산(攝山)에 돌아가 서하사(棲霞寺)를 창건하고 거주하니, 고제(高帝)가 이를 심히 한스럽게 생각했다”(南史50, 列傳40: 明僧紹).¹²⁾ 아들 원림(元琳)이 있어 자(字)는 중장(仲璋)으로 또한 가업(家業)을 전했다. 승소의 형제들이나 조카들도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명승소는 대를 이은 명문으로 세속적인 탐욕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고매하고도 고결한 인품의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법도의 고결함과 경건한 미타신행 영험의 감화를 흠모하여 그의 제자가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고승전』의 「법도전」에는 법도의 제자 “법소(法紹)는 본래 파서인(巴西人)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이어서 “여남(汝南)의 주옹(周顒)이 성도(成都)를 떠나면서 초청하여 함께 내려 와 산자정사(山茨精舍)에 머물렀다. 법도와 법소(法紹)에 대해서는 제(齊)의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과 시안왕(始安王) 요광(遙光)이 스승의 예로써 공경하여, 사사(四事)를 공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승전8, 釋法度. 大正藏經50: 380하단). 여기에서 사사(四事)란 불교의 율전(律典)에 의하면, 승려들의 일상의 수행에 꼭 필요한 네가지로 의복, 음식, 와구(臥具), 탕약 등을 뜻하지만, 크게 보아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내용에서 법소는 사료에 의하여 이렇다 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방금 언급한 『고승전』이 전하는 바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던 고승이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범행(梵行)에 있어서 청고(淸苦)했던 고승이었다 하겠다. 한 편, 『고승전』의 「법도전」에 나오는 위와 같은 내용은

12) “그 선조는 吳太伯의 후예로, 百里奚의 아들 孟明이 이름을 姓으로 했으며 그 후손이다.”
※“其先吳太伯之裔 百里奚子孟明 以名爲姓 其後也.”

13) “既而遁還攝山 建栖霞寺而居之 高帝甚以爲恨.” ※단, 棲霞寺는 栖霞寺로도 쓴다.

간접적으로 법도와 법소의 행의(行儀)와 학덕 및 인격의 됴됨이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주변의 정황증거라 하겠다. 우선 다음의 기록을 검토해 보자.

[V-1] : 섭산(攝山)의 고려 낭대사는 본래 요동성 사람이다. 북토(北土)로부터 멀리 나집대사(羅什大師)의 뜻(義)을 익혀 남토(南土)에 들어 와 종산(鍾山) 초당사(草堂寺)에 머물렀으며, 은사(隱士) 주옹(周顒)을 만났다(大乘玄論1, 大正藏經 45: 19중단).¹⁴⁾

여기에서 종산의 초당사는 『속고승전(續高僧傳)』의 「혜약전(慧約傳)」에 의하면, 제(齊)의 중서랑(中書朗)으로 여남(汝南)의 염령(剡令)이 된 “주옹(周顒)”(南齊書41, 列傳22: 周顒; 南史34, 列傳24: 周朗族孫顒)이 혜약(慧約)을 위하여 종산에 있던 “뇌차종(雷次宗)”(宋書93, 列傳53, 隱逸: 雷次宗; 南史75, 列傳65, 隱逸上: 雷次宗)의 구관(舊館)에 건립한 것으로 산자(山茨)라고도 했다 한다(續高僧傳6, 釋慧約. 大正藏經 50: 468하단).¹⁵⁾ 그리고 『고승전』의 「혜원전(慧遠傳)」에는 “혜원이 『상복경(喪服經)』을 강설하자, 뇌차종과 ‘종병(宗炳)’(宋書93, 列傳53, 隱逸: 宗炳) 등이 모두 책을 잡고 그 뜻을 이어 받았다”(高僧傳6, 釋慧遠. 大正藏經50: 361상단)고¹⁶⁾ 하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 뇌차종은 중국불교사에서 정토교의 개조로 유명한 혜원의 여산(廬山) 백련사(白蓮社)에 모였던 18현인(賢人)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平井俊榮, 1976: 266의 註(12)) 이렇게 보면, 뇌차종을 연결고리로 하여 이 초당사와 여산 혜원의 백련사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인연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겠다. 더욱이 앞서의 인용문 [I - 3]의 내용 가운데 “백사(白社)에 내유(來遊)하여 범행(梵行)을 닦아 고행을 다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이 종산의 초당사는 법도에게 있어서도 결코 무관한 곳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백사(白社)는 분명히 여산의 혜원이 전개한 백련결사(白蓮結社)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승랑 후예들의 학문과 수행에 있어서 그 가풍이 어떠했는가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선 승랑의 스승인 법도 및 승랑을

14) “攝山高麗朗大師 本是遼東城人 從北土遠習羅什師義 來入南土 住鍾山草堂寺 值隱士周顒.”

15) “齊中書朗汝南周顒爲剡令 欽服道素 側席加禮 於鍾山雷次宗舊館 造草堂寺 亦號山茨.”

16) “遠講喪服經 雷次宗宗炳等 并執卷承旨.”

포함한 법도의 제자들이자 승랑에게는 그 자신과 함께 서로 사형제(師兄弟)들 사이이기도 한 인사들의 인품과 행태 및 학문에 대해, 소략(疏略)하고 미흡하나마 대충 살펴 보았다. 이제는 서하사의 승려들이 재가(在家)의 불자들 가운데 어떤 인사들에게 귀의를 받았나 하는 것을 검토하여, 또 다른 차원에서 장차 섭산 서하사 승랑의 가풍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변화해 갔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 단서나 정황증거의 자료로 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우선 주옹(周顒)을 검토해 본다. 그의 자(字)는 언륜(彦倫)으로, 여남(汝南)의 안성(安城) 사람이다. 진(晉)의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 의(顒)의 7세손이며, 조부는 호두(虎頭)이고 원외상시(員外常侍)였으며, 아버지 순(恂)은 귀향(歸鄉)의 상(相)이었다. 이로 볼 때 최정상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대부의 반열에는 들 수 있는 귀족층의 인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찍부터 그의 총민함이 알려져 여러번 관직에도 나갔으나, 그의 장처(長處)는 학문과 고결한 인품에 있었다 하겠다. 그의 학문은, 음사(音辭)와 언변은 아름다워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궁상(宮商)의 음조(音調)와 주자(朱紫)의 선악이 입을 벌리면 바로 글귀가 된다. 두루 백가(百家)를 섭렵하였으나 불교의 이치 이해에 장처(長處)가 있어 『삼종론(三宗論)』을 지었다. 주옹은 종산(鍾山) 서쪽에 은사(隱舍)를 세우고 휴목일(休沐日)에는 이 은사(隱舍)에서 지낸 것으로 전한다(南齊書41, 列傳22: 周顒; 南史34, 列傳24: 周朗族孫顒).

이와는 달리, 제(齊)의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미 이 경릉문선왕(竟陵文宣王) 소자량(蕭子良, 460-494)은 남조 제대(齊代)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자(字)는 운영(雲英)이고 세조의 제2자이다. 소자량 그는 남제불교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봉불의 불자였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양무제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중국의 남조불교에서 귀족 내지 사대부의 불교신앙을 검토할 경우 언제나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소자량의 영향과 역할이라 하겠다. 그의 전기는 사서(史書) 『남제서(南齊書)』(南齊書40, 列傳21, 武十七王: 竟陵文宣王子良)와 『남사(南史)』(南史44, 列傳34, 齊武帝諸子: 竟陵文宣王子良)에 실려 있다. 승명(昇明) 3년(479) 이래 여러 고위의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영명(永明) 원년(483)에는 시중(侍中)으로 남곤(南袞), 곤(袞), 서(徐), 청(淸), 기(冀)의 5주 도독

인 정북장군(征北將軍) 남곤주(南袞州) 자사가 되었고, 다음 해에는 호군장군(護軍將軍), 겸사도(兼司徒), 영병치좌(領兵置佐), 시중(侍中)에 올랐다. 이 때, 소자량은 안취성 화현(和縣)에 있는 계룡산(雞籠山) 서북쪽의 서저(西邸)로 옮겼다. 『남제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자량은 소시(少時)부터 맑고 고상했으며 예(禮)와 재질로 선비를 좋아했다. 처신을 의심 없는 곳에 두고, 뜻을 기울이며 빈객을 대하여 천하의 재사와 학자가 다 모여들었다. 훌륭한 일을 잘 세우고, 여름에 객이 오면 오이의 음료와 단 과일을 베풀어 문교(文教)를 드러나게 했다. 사군자(士君子)의 문장이 조정에게까지 미치지 귀한 말씀과 글은 다 교(敎)로 찬록(撰錄)하였다고 한다(南齊書40, 列傳21, 武十七王: 竟陵文宣王子良).¹⁷⁾ 한 편, “계룡산 저택에 거주하면서 학사를 모아 5경과 백가를 초(抄)하여 『황람(皇覽)』의 예에 따라 『사부요략(四部要略)』 천권을 만들어 학술방면에 불후의 업적을 남겼으며, 명승(名僧)을 초치하여 불법을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또한 경괘(經唄)의 새로운 소리를 만들게 하였다((南齊書40, 列傳21, 武十七王: 竟陵文宣王子良).¹⁸⁾ 그리고 이 계룡산의 서저에는 뒷날 양나라의 무제가 된 소연(蕭衍)을 비롯하여 심약(沈約), 사조(謝朓), 왕융(王融), 소침(蕭琛), 범운(范雲), 임방(任昉), 육수(陸倕) 등 당시의 기라성 같은 문인이나 학자 내지 사군자들이 이 곳에서 빈번한 교유(交遊)를 맺었다. 그러나 소자량의 이 서저는, 이미 시사되었듯이, 문인이나 학자 내지 사군자 만이 출입하던 곳은 아니다. 유명한 승려들을 초청하여 불법을 강설하기도 하며, 때로는 범패를 새롭게 만들어 창도사(唱導師)에게 읊게 하기도 했다. 승려와 재가의 신도가 함께 불교의식을 새로 만들어 성대하게 한 것은 강남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한다. 영명 원년(483) 2월 8일, 소자량은 수도에 유명한 승려들을 모아 자신의 상저(上邸) 안에 있는 법운정려(法雲精廬)에서 강석(講席)을 열었다. 심약(沈約)이 찬술한 글에 의하면, “경릉왕 전하는 신묘함이 상지(上地)를 초월하고 도는 생지(生知)에 으뜸이다. 보업(寶業)을 명진(冥津)에 심고 바른 이해를 위해 충념(沖念)을 모은다”(廣弘明集19, 齊竟陵王發講疏并頌. 大正藏經52: 232중단)¹⁹⁾ 라고 찬양했다. 그리고 소자량이

17) “子良少有清尚 禮才好士 居不疑之地 傾意賓客 天下才學 皆遊集焉 善立勝事 夏月客至 爲設瓜飮及甘果 著之文教 士子文章 及朝貴辭翰 皆發教撰錄.”

18) “[建元] 5年 正位司徒 給班劍二十人 侍中如故 移居雞籠山邸 集學士抄五經百家 依皇覽例 爲四部要略千卷 招致名僧 講論佛法 造經唄新聲 道俗之盛 江左未有也.”

새로운 소리의 범패를 작곡했다는 『남제서』의 내용은 『고승전』의 「승변전(僧辯傳)」(高僧傳13, 釋僧辯. 大正藏經50: 414중단)과 「혜인전(慧忍傳)」(高僧傳13, 釋慧忍. 大正藏經50: 414하단-415하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소자량은 수도의 명승과 석학을 모아 『성실론』이나 『십송률』을 위한 대형의 강의를 당대 제1의 그 분야 고승들에게 청하여 개최하곤 하였다. 소자량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능력은 저술에 있어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역량을 보여준다. 그의 불교관련 글들은 『출삼장기집』에 16질 116권의 서명(書名)과 자서경목록(自書經目錄)이 수록되어 있다(出三藏記集12, 齊太宰竟陵文宣王法集錄序2. 大正藏經55: 85 중단-86중단). 이상과 같이, 소자량은 당대의 이름 있는 문인들과 널리 교유(交遊)했으며, 여기에 천하의 명승과 고승은 거의 빠트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취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실천의 실행 어느 하나에만 심취한 적은 없다. 주야 6시로 예경의 실행을 철저히 견지했으며, 강경의 법회, 의례에 있어 범패의 작곡과 도입, 여러 재회(齋會)의 개최, 각종 불교적인 일상생활의 규범과 절차 등에 관한 저술을 다수 남겼다. 한 편, 시안왕(始安王) 요광(遙光) 또한 온화한 성격의 친불교적 사대부였다고 하겠다(南史41, 列傳31, 齊宗室: 始安王遙光; 鎌田茂雄, 1984: 134).

V.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품 - 잠정적 결론에 대신하여 -

이 연구는 앞서의 “1.연구의 성격”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고대사 내지 중세사에서 각 시대에 불교 승려들의 외국에의 구법유학 실태를 한국교육사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의 역사적 사실을 전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과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국 승려들의 외국유학에 있어서 최초 선구자 가운데 하나라 할 고구려 승량을 첫번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 벽두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자에 의한 이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고구려 승량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사승관계” 그리고 “승량연원의 중국 삼론학사에서 남

19) “竟陵王殿下 神超上地 道冠生知 樹寶業於冥津 凝正解於冲念.”

조문화와 양무제”의 제목으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연구는 고구려의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에서 승랑의 후예들이 학문이나 수행 내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가풍을 형성해가면서 전승시켜 갔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승랑시대의 섭산 서하사의 학문과 신행 내지 인품 등 여러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찾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은 승랑의 스승인 법도, 법도의 후계자인 승랑, 법도의 제자이자 승랑의 사형제인 법소, 혜개, 법개, 승소와 섭산 서하사에 귀의한 재가불자로서 경릉왕 소자량, 은일(隱逸)의 고사(高士)로서 내외의 전적을 두루 섭렵한, 당시 최정상급의 불교학자인 주옹과 그리고 시안왕 요광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법도와 승랑을 포함한 법도의 제자들, 그리고 섭산 서하사의 승려에게 귀의한 재가의 불자들 모두가 청고(淸高), 고절(苦節), 고고(孤高)라는 표현에 합당한 고결하고도 고매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는, 특히 남조의 경우, 지성인들 사이에는 청담과 은일의 풍조가 있는가 하면, 학문과 종교 그리고 문학 등 넓은 의미에서의 인문적인 자유가 있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영역이나 차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토론하는 흐름이 있었다. 한 편, 은일의 풍조 가운데는 고절(苦節)과 청고(淸高)를 추구하는 매우 진지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무위자연적(無爲自然的)이면서도 세속적인 모든 것에 초연하여 달관하려는 모습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기인적인 삶의 추구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풍조의 영향은 승랑시대의 섭산 서하사에도 있었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법도, 승랑, 법소, 승소는 청고(淸高), 고절(苦節), 고고(孤高)에 해당되는 청정한 승려로서의 수행자들이며 학승들이었다. 그러나 혜개와 법개는 무위자연적이며 달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도 혜개는 술과 해학 및 장기와 바둑을 가까이 했다는 점에서 승랑시대의 섭산 서하사의 분위기나 인품의 공통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경릉왕 소자량이나 주옹 또는 시안왕 요광 등은 남조에서의 지도적인 지식인이면서 불불의 재가불자들인 바, 이들이 법도와 법소에 귀의한 것은 섭산 서하사 승려들이 지닌 은일적인 삶과 청고(淸高) 내지 고절(苦節)에 경의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섭산 서하사 출신이거나 승랑의 스승인 법도, 그 밖에

승랑의 사형제들 어느 누구도 삼론이나 삼론의 바탕이 되는 반야학을 탐구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승랑에 의해 규탄되어 온 『성실론』의 전공이 승랑 자신과 사형제의 관계에 있는 해개와 범개에서 확인된다. 추측해 보건대,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 강남의 남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삼론의 이해나 흥포가 미흡했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이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승랑의 직제자들의 시대에 있어서 섭산 서하사의 가품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승랑의 적통인 길장이 뒷날 삼론학을 대성하여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을 형성해 간 과정, 그리고 삼론학의 이론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 나아가서는 한국의 고대 내지 중세에 한국불교승려들의 구법유학이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성격과 역할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이 지닌 동아시아 국제교류사에서의 공헌과 문제점에 대한 규명 등도 심도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大正藏經은 大正新修大藏經을 뜻한다.

法華玄義釋籤, 大正藏經33

大乘玄論, 大正藏經45.

高僧傳, 大正藏經50.

續高僧傳, 大正藏經50.

弘明集, 大正藏經52.

廣弘明集, 大正藏經52.

出三藏記集, 大正藏經55.

宋史.

南齊史.

南史.

- 任繼愈 主編, 小川隆 他5人 日譯(1994). 定本中國佛教史Ⅱ, 東京: 柏書房.
- 鎌田茂雄, 章輝玉 譯(1993). 中國佛教史 - 受容期の 佛教 - ②, 서울: 장승.
- 鎌田茂雄(1984). 中國佛教史3 - 南北朝의 佛教(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平井俊榮(1976), 中國般若思想史研究 - 吉藏と三論學派 -, 東京: 春秋社.